

배포 2024. 1. 30.(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1. 30.(화) 12:00
(지 면) 2024. 1. 31.(수) 조간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
-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추진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31일(수),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양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물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되며,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되었다.

<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 >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상	117개교	37개교
내용	대학교육의 자율적 혁신 및 학생지원 강화	국립대학의 경쟁력·책임성 제고, 자율적 혁신 지원
총 사업비	8,852억 원(+795억 원)	5,722억 원(+1,142억 원)
산식에 따른 지원금(포물러) : 성과급(인센티브)*	50 : 50 (4,410억 원 : 4,410억 원)	40 : 60 (2,284억 원 : 3,426억 원)

* 사업관리비 제외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사항

올해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편당)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물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 배분

올해부터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는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 사항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23년에 이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편당)으로 지원한다.

※ 7개 주요 과제: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비 총액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물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을 책정한다.

미래사회 선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하여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평가·절대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과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학 중 폭 넓은 경험**을 통해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여, 그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예시)	평가 주안점
교육 혁신	• 교육체제 개편 및 학사구조 유연화 등 성과 ※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개편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기초학문 등 활용한 소양교육 활성화 •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재학단계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전과, 복수전공 등)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 등 평가
제도 기반	• 전공자율선택을 뒷받침하는 학내 제도 개선 -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기반 구축 • 학생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바,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에스(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하여, 전체 대학들에게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하여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1.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담당 부서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효신 (044-203-6243)
		담당자	사무관	이준혁 (044-203-6924)
			사무관	이영선 (044-203-6928)

